

우유는 임금만 먹던 補藥

〈국토개발원 연구원〉 元 鍾 益

◎ 韓民族은 낙농의 선구자였다.

흔히들 소의 젖에서 영양을 얻는 낙농은 西洋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자체가 근자에 들어 비롯되고 발전된 것으로 믿고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데 국내의 가장 오래된 古書인 「三國遺事」에 보면 醍醐(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牛酪)란 말이 나와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우유를 짜서 보신용으로 먹거나 藥으로 쓴 기록을 볼수 있어 주목을 끈다.

또한 日本에 전해 내려오는 「日本史記」 또는 「皇國醫事年表」의 몇가지 기록들이 더욱 분명히 이러한 史實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흥미롭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백제 威德王(554~598) 무렵 智總이란 백제사람이 日本에 귀화해 日本 조정에서 內·외의 醫藥書, 明堂圖 등 164권의 책을 바치고 이어 백제 義慈王 말년께 智總의 아들 福常(別名 善邦)이 아버지를 찾아 日本에 귀

화해 처음으로 소에서 젖을 짜 당시 日本의 孝德천황께 바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우유를 마신 천황은 매우 기뻐하면서「牛乳는 人体를 건강하게 하는 藥」이라 하여 福常에게 和樂使主라는 姓을 내리고 자손대대로 이 우유업을 전승케 하여 조정에 우유를 바치게 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후 福常의 벼슬이 大山上에 까지 올랐고 죽은 다음 乳長上이란 존호까지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常上이 日本에서 우유를 짠 소 역시 우리나라 소였다는데 이로서 우리는 이미 당시 日本에서 조선소를 수입, 사육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문헌: 桜井豊씨의 「낙농 책론」, 1971) 이런 연유로 福상은 日本에서 乳祖 즉 우유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만치 우유소의 사육과 착유기술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었는가를 짐작할만 하다 하겠다.

◎ 고려 李朝시대의 낙농

여기서 우유소라 함은 통상 알고있는 얼룩무

의 젖소가 아닌 재래종 韓牛중에 선택된 產乳 능력이 우수한 소를 일컫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때에도 乳牛所라고 불리는 목장이 있었다. 또는 牧牛所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곳에서 國王전용의 御用과 近臣賜送용으로 乳酪(우유)을 進供하고 「煎藥」「酪粥」의 원료로서 우유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치는 東大門안 북쪽고지에 있었다 한다.

또한 당시는 우유를 駝酪이라고도 해서 國王의 보양제로서 아주 귀하게 여겼다. 고려 明宗 때의(1170~90) 기록에서도 그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사 99권 「李純佑의 傳」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嘗奏近來因八關煎藥，命醫官歲取四畿民乳牛，級取乳汁煎而成酥 梳櫛俱傷，其藥本非備急，且損耕牛，請罷之，制從之〉

즉 <팔관(추수가 끝난뒤 土俗神에 제사지내는 의식)에 쓸 煎藥을 만들기 위하여 의관으로 하여금 매년 近郊농민의 소에서 소젖을 짜 바치도록 하였다.

그 젖을 끓여서 죽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미소나 송아지가 다 상하게 되었다. 본시 급하거나 진요하지도 않은 그 약 때문에 농경우의 손상이 크다는 청원에 따라 이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농경우의 손상이 컸다.」는 기록은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결코 그만치 乳牛所 또는 牧牛所시설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도리어 다른데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만 생기는 까닭에 기록에 남게 되었을거란 해석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사실은 李朝때의 기록인 東國歲時記, 眉峯日記, 郊居瑣編등에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난

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유는 매우 진귀한 보약으로서 주로 酪粥(우유죽)의 원료로 사용했는데 그것도 궁중전용물이어서 民間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웠다. 궁중에서도 常時복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임금님의 玉體에 이상이 있을 때 藥房으로 하여금 酪粥을 진상케 하고 重臣들이 병들어 누웠을 경우 王命으로 牛酪(우유)을 특별히 내렸다 한다.

또한 매년 10월부터 正月까지는 乳酪을 만들어 진상하고, 耆老所에서도 乳酪을 만들어 耆臣들에게 나눠 하사했다.

耆老所란 일흔살이 넘은 文臣중 正二品이상의 老臣下들을 모셔 예우하던 곳을 이른다.

그런데 그 宮中秘方的 보약인 우유가 어떤 경로를 통했는가는 모를 일어로되 民間으로 흘러나와 암거래 되고 일부 부유층에서도 그것을 허발하였다니 우유의 진가는 고려때는 물론 李朝때 역시 절대적이었음이 사실인듯 하다.

우유를 가공하여 患者食 또는 노인식품으로 사용한 것이라든지 냉장시설이 없던 시대였는지라 시월에서 正月까지 신선한 철에 맞춰 사용한 점 등도 特記할만 하다 하겠다.

우유를 생산하는 乳牛所 또는 牧牛所는 고려때의 국가상설기관이었던 만큼 그 시설은 李朝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다만 그 명칭이 乳牛所에서 駝酪色으로 바뀐 점이 다를 뿐이다.

世宗20년 그곳에다 東學을 두는 바람에 駝酪色은 당시 宮中の 興馬를 사양관리하는등 國立牧場에 속하는 司僕寺의 부설기관이 되었다.

지금의 서울 東崇洞이 그 본래의 위치이고 지금도 東大門에서 東小門에 걸치는 東山일대를 駝酪山, 약해서 駝山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駝酪所 즉 乳牛牧場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명칭인 것이다.

또한 李朝때의 낙농에 관한 기록은 「林園十六志」라는 책에서 비교적 소상히 찾아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우유를 짜기 위한 소의 사육법을 비롯해 착유법, 우유의 가공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고 「本草綱目」을 비롯한 한의서에 역시 酪이나 酥를 만드는 방법이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酪이란 오늘날의 버터 즉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말하는 것이며 酸는 지방분을 분리한 우유를 뜻하는 것이다.

이들 기록에 보면 소가 젖을 많이 내게끔 하기 위해 소위 오늘날 농후사료라고 볼수 있는 것으로서 보리를 갈아 소에 먹인다는 방법이 써어져 있고 젖을 짜 때를 젖꼭지를 맛사지 하는 식으로 주물러야 하며 심한 경우는 소를 눕혀 놓고 유방을 발로 차는 등 자극을 가해 이른바 乳核을 틀어 젖을 짜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짠 우유로는 앞서 밝힌 酪이나 酥 외에 酪粥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는 우유에 찹쌀을 갈아넣어 끓인 죽으로서 「東國歲時記」에 따르면 國王에게 진상하기도 하고 일흔살 넘은 正二品이상의 重臣을 돌보는 耆臣所에서도 이를 만들어 모든 耆臣들에게 나눠주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李朝 말엽들어 당시의 哲宗이 酪粥의 진상을 금하고 송아지나 잘 기르라고 분부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哲宗은 속칭 강화도령으로서 강화도에 묻혀 살다가 왕이 된 분으로서 몸소 농촌에서 뼈아프게 겪은 바가 있어 농민들의 수고를 생각해 酪粥의 진상을 금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저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李朝때 역시 낙농에 획기적인 발전상 같은건 엿볼 수 없고 乳牛의 사육, 착유 및 우유가공면에서 前代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開化期의 낙농

우리나라의 開化는 1876년 釜山개항과 1883년 仁川 개항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때부터 여러 외국인과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선교사·외교관등 西洋사람들이 국내에 常住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식생활을 위해 젖소도입이 시도되었다. 그 첫번케이스는 갑오경장(1894) 직후 프랑스사람 쇼트가 홀스타인종 젖소 20마리를 본국에서 들여다가 지금의 新村에 목장을 차리고 시범경영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진짜 젖소에 의한 우리나라 낙농의 嚆矢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된 우유는 당시 궁중에 진상도 되고 서울 사는 外國人에게도 공급되었으나 불행히도 불과 두해도 채 안되어 이 젖소들이 모두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 이후 旧韓國정부는 1908년 日本의 힘을 빌어 水原에다 勤業도범농장을 설치했으며 여기에 축산부문으로 에어서, 홀스타인, 저지등 우수한 젖소품종을 도입,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 2년후인 1910년에는 이곳의 젖소사육수가 452두로 불어남에 따라 서울에 사는 외국인을 비롯한 高官·부유층에 공급되었다. 1910년 日本은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한 뒤 水原의 농장을 확장하는 한편 목축에도 힘을 기울여 서울근교에 日人들이 경영하는 목장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고 그후 전국 각지의 농업학교에서도 시험사육이 실시돼 점차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도 크게 늘어 1930년대에는 4,000두에 달해 피크를 이뤘던 기록이 당시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우유를 분유화한다거나 그와 다른 유제품으로 만드는 가공시설이 빈약해 이 두수만으로도 공급과잉을 빚어 점차 사육두수가 줄게 되었다. 1940년에는 2,300두로 줄었다가 1941년 2차대전이 일어나자 増産정책의 뒷받침으로 1942년에는 다시 3200마리까지 늘어났으나 戰火가 치열해지면서 다시 고개를 숙여 해방되던 해인 1945년에는 1661마리로 피크당시의 절반도 못 되게 감소되고 말았다.

◎ 光復후의 낙농

1945년 光復과 더불어 이땅에 많은 미군이 주둔하게 됨에 따라 많은 양의 분유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식량이란 차원에선 환영할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낙농의 발판을

무너뜨려 그만치 낙농발전을 지연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요인으로 6.25전쟁과 전후의 혼란, 식량난, 인플레이션은 낙농을 타산업의 뒷전에 처지게 만든 원인들이었다고 볼수 있겠다.

이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젖소들도 거의 멸종되다시피해 낙농의 荒蕪地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그후 戰禍복구시기를 통해 韓美재단을 비롯한 민간기구와 軍政廳농업당국은 낙농의 필요성을 느끼고 멀리 美國에서 원조로 젖소를 도입해와 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을 전개했으나 농가들이

“부리지도 못하고 먹기만 한다.”

고 젖소의 사육을 극력 꺼려, 이 젖소를 말아 기르면 원조도 더 많이 주겠다고 사정사정해 기르도록 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60년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저 면면히, 어떤 변화나 발전도 없이 낙농의 명맥이 이어져 왔을 뿐이고 낙농이 근대화된 형태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은 1962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후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